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176호
7월 3일
2021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하비계 전화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8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남녀교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권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www.aogk.org) 이메일: mok2677@naver.com 전화: 02)2677-9935~7 FAX: 0504027-0897

교단 2021년도 목사고시 치러

총회 고시위원회 주관

교단의 2021년도 목사고시가 지난 6월 28(일)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 이석호 목사) 주관으로 총회 신학원에서 치러졌다.

2021년도 목사고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년에는 2일간 치러진 것을 방역을 위해 하루에 치르게 되었다. 오전 9시 30분 목사 임직 대상자들과 고시위원 이석호 목사, 이봉근 목사, 김영준 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신학원에서 고시위원장 이석호 목사의 지도로 목사고시 응시생들을 격려 축하해 주었으며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일하는 바 성과를 다 이룰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석호 목사, 이봉근 목사, 김영준 목사 등 고시위원들이 고시위원회를 시작하고 있다.



고시위원회의 구성은 이석호 목사, 이봉근 목사, 김영준 목사, 이석호 목사, 이봉근 목사, 김영준 목사 등이다.

한편 목사고시가 시작되기 전 고시위원회의가 열려 고시위원들이 이석호 목사의 인도로 2021년도 목사고시 일정을 확정지었다.

2021년도 목사고시 일정은 21년 6월 30(일)까지 지 목사고시 서류를 접수 마감하며, 9월 9(일) 서류 심사, 9월 30(일) 오프라인시험, 목사고시일은 2022년 2월 7(일), 8(일) 치르게 된다. 목사고시 일정은 본지 1176호 6면 상단 광고 참조.

올해 목사 안수 및 임직은 이번 목사고시를 통과한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임원회에 올려져 인준을 거친 후 각 지방회별로 거행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이 이루는 것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임이라” (롬 5:4)



조영준 목사

일생 동안 환난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환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이기는 환난이 의미 있는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소망을 이룬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임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환난은 성도들을 낙심하게 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의 도전을 받아 환난을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환난을 통하여 연단되어 신앙이 더 견고하고 순수하게 됩니다. 환난은 우리의 욕심과 현실 생활에 고분과 손실을 입히지만 성도들은 그로 인하여 전구 소망, 부활 소망이 더욱 강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도록 하는 보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 할 수 있는 것은 그 보장이 없습니다. 65~80 예수께서 보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여주셨습니다. 환난이 성도들을 절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생애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둘째,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영광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환난은 대체로 근심, 두려움, 슬픔, 불편, 상실, 고통, 아픔 같은 것을 수반합니다. 그러므로 환난이라는 말에는 “가벼운”이라는 형용사가 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받으시고 고난을 감내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가리켜 “가

벼운 환난”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당하는 손실, 희생, 핍박 등의 환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환난”이라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광로운 것인지는 세상의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오랫동안 환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환난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는 중에 당하는 환난은 반드시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됩니다.

셋째, 성도들에게는 환난이 선을 이룬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은 말입니다. 첫째로,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근심, 두려움, 슬픔, 아픔, 상실, 고통, 아픔 같은 것이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겪게 되는 환난이 하나님의 신의 섭리에 발현을 이루게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의지하고 간구하게 되므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들이 겪는 근심, 두려움, 슬픔, 아픔, 상실, 고통, 아픔 같은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제주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때가 반드시 닥아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교묘하게 포장된 평등법, 동성애법 저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면예배

제68차 총회 제25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신재경 목사) 제68차 총회 제25회 임원회가 지난 6월 30(일) 오후 1시 다중영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영상으로 열린 통합 동영상 회의에서 각종 보고와 회부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총회장 신재경 목사의 인도로 재무 한순간 목사의 성령강림, 총무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총회장 신재경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마 7:9-1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항상 간절히 구하는 시종자들이 되어야 한다”를 강조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포장된 평등법 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한국교회와 교단을 위해서 신학, 사경회와 소속 교회들 위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임원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회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으며 부총회장 정영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끝내로 이어진 임원회는 총회장 신재경 목사 주례로 사기 장영진 목사의 회원점령, 이장 신재경 목사의 개회선언 후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총무 이경진 목사는 보고사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차원에서 각종 총회 일정에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총회 일정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2021년도 목사고시가 지난 6월 28(일) 방적으로 인해 수차례 연기되던 끝에 이룩된 철저한 방역을 준수한 가운데 총회에서 안전하게 치러졌음을 알리고 아울러 2022년도 목사고시 일정이 고시위원회에서 확정되었음을 보고했다.

이어 재무 한순간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김관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 등의 사항으로 교역자복지 지원, 교회전출입 지원, 교회장비정비 보고, 교회사무준비 보고 등의 내용이 결의 및 보고되었다.

임원회에서는 교회에 방역을 발기로 안배를 가하



사경회 코로나 이전 임원회에서 기별할 평등



사경회 코로나 이전 임원회에서 기별할 평등

평등법안은 설교, 전도 등 종교와 개인 사생활에 직격

평등법안, 신앙·표현 자유 훼손 신 전체주의 초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 등을 펼치는 대표적 단체들인 동방연, 진평연, 복음평화회 등 주요단체는 지난 6월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비판하고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모임은 김수진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의 사회로, 원성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와 선봉선(동화사 주), 김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뒤 조봉찬 변호사(복음평화회 회장)의 사회로, 이석호 교수(선봉선 대표), 조영길 변호사(복

원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발제했다. 이후 패널로 참석자 김지연 교수(세제대 비로새유학부)와 함 대표, 한영호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가

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리고 이에 대해 교회와 감영소식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묘하게 포장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동성애법 등 각종 입법 및 조약제정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시민군 협의회와 힘을 모아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원회는 사기 정영진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원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발제했다. 이후 패널로 참석자 김지연 교수(세제대 비로새유학부)와 함 대표, 한영호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회)가

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대면예배를 드리고 이에 대해 교회와 감영소식은 완전히 사라지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묘하게 포장된 차별금지법 및 평등법, 동성애법 등 각종 입법 및 조약제정안이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시민군 협의회와 힘을 모아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임원회는 사기 정영진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사경회 코로나 이전 임원회에서 기별할 평등

전용 목사(전강한가정민들)가 국민운동본부 대표가 토

말어 있었다.

먼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의 발의적 문제에 대한 소고 리는 제목으로 발제한 조봉찬 변호사는 “이 법(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며 종교적인 문제만도 아니며 우리 사회의 근본을 변형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깊은 사고와 토론을 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지난 6월 16일 발의한 평등법안과 관련, “괴물법”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 이 법안 제3조 7호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다. “괴물법”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종·정착·고분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학대, 위협적 또는 모욕적 행위를 조종하는 행위 나. 장악한, 모욕,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비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의적 표현을 하는 행위

발안은 차별금지 사유를 이유로 한 이 같은 괴물법을 처벌한다.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마음에 불만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해서 바로 차별이라고 하고 법적인 제재에 불응한다면 괴물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주적인 상태에 의하여 괴물법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을 해한다고 지적했다.

조영길 변호사 역시 평등법안이 △성차별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고 있고 △생활 전 범의 영역에서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이 법을 시행할 기본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했다.

한편, 진평연과 복음평화회에서는 이날 관련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평등법안의 가장 위험한 내용 중에는 평등법이 적용되는 차별영역의 제

한이 없이 모든 영역에 적용되도록 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따라서 가정의 영역, 개인의 사생활의 영역, 그리고 종교의 영역에도 직접 적용이 된다”는 것, 이들은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의 동성애 또는 성전환 성향에 반대를 하면 자녀에 대한 괴롭힘, 폭력, 차별이 될 수 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 평등법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성당, 사경회, 교회 예배당에서의 설교, 종교전통, 성경공부 모임, 길거리 전도에 있어서도 평등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자신의 범위 중 하나로 넣은 괴물법에 대해서는 소위 혐의적 표현을 포함시켜 처벌하”고 했다. 이어 “평등법은 ‘자녀’, ‘성별’은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 ‘성별’은 남녀 2개뿐이다”와 같은 발언이 설교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차별시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사법부가 자율하게 차별의 개제로 지목된 지를 구체적으로 권을 내리기 어려워서 등 사법부의 독립이 파괴될 것”이라며 “입법부도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합법화 입법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3·5세의 정찰적 수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실상 형사처벌보다 더 가혹한 제재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차별적 설교나 발언이 유튜브, 방송, 인터넷 신문에 공개된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두 단체는 “평등법안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등법안은 차별을 해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등, 사법부, 사법부를 통해 하도록 하며, 총과 칼을 버리고는 법 제재 수단을 통해 윤리와 양심을 잃는 것은 국민을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만드는 신 전체주의 독재법”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유와 인권, 공평과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평등법안이 절대대로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다시 한 번 평등법안의 발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평등법안의 저지를 위해 전국민의 힘을 모아 입법적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했다.

문화막시즘, 기독교문화 파괴·사회주의 전파

김승규 변호사, 문화막시즘 첫 특강서 자유민주주의의 한미동맹 강조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소장 김승규, 변호사, 전 법무부장관 전 국정원장(국무총리)과 한국성공회연구원(회장 민성갑)이 공동으로 개최한 '문화막시즘 특강'의 첫 번째 강사가 지난 6월 30일(토) 오후 서울의 평화로(가급언)에서 열렸다.

6-8월, 3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특강 첫날 강의에서 김승규 변호사(전 법무부장관 전 국정원장)가 '문화막시즘이란'이라는 제목으로 90분 강의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의 가치를 갖지 않은 국민들로 분열된 국가는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모든 국가는 국민의 공공의 가치를 헌법에 정착한다"며 "우리나라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고, 이에 대한



보호장치로 국가보안법 등을 제정했으며, 한미동맹을 굳히기 위하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 생명, 재산 등을 존중하는 데는 사상이나, 대적에 있는

진짜주의는 공산주의·사회주의를 내포하며 국가가 생산물을 소유하고 분배하는 체제"라며 "이는 전통적 막시즘에서 문화막시즘으로 변형해 기독교와 서구문화를 파괴하는 게 목적이다. 즉 기성, 윤리, 도덕, 중산층, 사유재산제도 등을 파괴하고 국가의존형 인간을 생산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이행하는 게 주요 목적"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립학교, 대학들, 언론, 미디어, 연예계 등 문화막시스트들에게 빼앗긴 문화기관들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며 "기독교, 교회에서 기독교가치관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흡수할 등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문화 막시스트들이 장악한 기관으로부터 분리해 가지라"고 했다.

위장된 차별금지법 철회 한국교회 기도회

자연질서 파괴와 개인 자유 억압하는 악법



(사)한국교회총연합회(총회장 김성환)가 2021년 6월 22일(토) 오전 7:00 ~ 8:00(한국시간) 100% 온라인으로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안성상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사회로, 이상철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주례로,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안성상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사회로, 이상철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주례로,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사회로, 이상철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주례로,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도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안성상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사회로, 이상철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주례로,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문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사회로, 이상철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주례로,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2부 특강과 기도회에서는 지영은 목사(기독교회)가 사회로, 이상철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주례로,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도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안성상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사회로, 이상철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주례로,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데자(Dedza)에 울려 퍼지는 희망의 라디오”

희망친구 기아대책-KOICA, 말라위 데자 지역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 실시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KOICA와 함께 말라위 데자 지역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국내 최초의 국제기구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지난 3월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말라위 데자 지역 라디오 교육방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아대책과 KOICA가 함께 하는 민간협력 사업이다. 양 기관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 말라위에서 가장 대중적 매체인 라디오를 활용해 '중등교육 방송'을 제작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인프라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시범 학교 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양 기관은 데자 지역 내 라디오 스튜디오를 개설했고 방송 송출을 위한 신규 채널 개선을 착수했다. 라디오 채널은 말라위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규제위원회를 통해 승인 허가 절차를 밟

을 예정이며, 라디오 송출 안정화를 위한 별도 전문 인력도 상주할 계획이다.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은 기아대책 현지 사업단 및 대학 교수진 등으로 구성된 워킹 그룹이 담당한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KOICA와 함께 말라위 데자 지역 중등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기지협 임원단,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

“서울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 위해 교회 함께할 것”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신원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서울시 발전과 교회 부흥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신원 목사)는 지난 6월 7일(월) 서울시청을 내방해, 오세훈 시장과 김원환 감동회를 가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날 감동회는 그간 소원했던 서울시와 한국교회와의 관계회복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대표회장 신원 목사, 부회장 김원환, 공동회장 최병두 목사(통합 중경총회장), 감동회 목사(통합 중경총회장), 김원환 목사(통합 중경총회장) 등이 함께한 이날 방문에서 양측은 서울시의 중점현안을 살피고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협력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교계 지도자들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동상에 쿠퍼축제



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신원 목사 등은 쿠퍼축제로 인한 동상에 조장과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감을 우려가 따른 급증하는 상황에 서울시가 결코 이를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지협이 현재 중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국민적응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도 요청했다.

이들은 "정치는 우리사회의 행운을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며 "한국교회가 앞장서 국민들에게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이때, 서울시도 이에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원 목사는 오 시장 역시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한국교회의 활동에 감사함을 표했다고 전했다.

6.25 같은 비극 다시는 없도록 합심기도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등 3개 연합단체 6.25 연합예배



양정열 목사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개혁신당연합회 대표회장

대신총회 설립 60주년, 미래 향한 비전 제시

학술대회와 기념예배 및 대신인상 수상자 선정

예장대신총회(총회장 이상재 목사)가 설립 60주년을 맞았다. 60주년을 맞은 대신총회는 대신의 정체성 확립, 역사성 재확인, 자긍심 고취, 그리고 대신의 미래를 향한 비전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20일(월) 함께하는교회에서 학술세미나와 기념예배가 진행됐다. 총회장 이상재 목사는 대회사를 통해 "1961년 6월 20일에 세워진 우리 대신총회가 오늘로 60주년을 맞이했다"며 "적응의 시간을 속해서 대신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눈물의 기도과 묵상예배로 대신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다. 학부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기도 했다.



현실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0년은 회로개혁이 공헌하는 한겨레 시간이었다. 학부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한 눈물과 아픔의 시간이기도 했다"

대신 "그러나 우리는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불굴의 개혁정신으로 뜻있게 다시 일어섰다. 이제 지난 60년을 거울삼아 100년을 향한 비전을 세우자"고 전했다.

투해본선교회, '장례문화개혁' 추진한다

천국환송예식과 인재양성에 주력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대한국교도총연합회(총회장 김성환)가 2021년 6월 22일(토) 오전 7:00 ~ 8:00(한국시간) 100% 온라인으로 '한국교회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안성상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사회로, 이상철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주례로,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도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안성상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사회로, 이상철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주례로,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도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안성상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사회로, 이상철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주례로,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도회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안성상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사회로, 이상철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주례로, 김성환 목사(예장 개혁신당)가 기도문을 낭독했다.

이날 기도회에서는 이 법안은 자연질서를 파괴하고,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며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네트워크를 활용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기념대회에서 목회자들은 지난 40년 동안 합심과 함께한 하나님을 기쁘히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특히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성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투해본선교회(대표 김현수 목사)가 지난 6월 16일(수) 오전 10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제71회 6.25 삼기 연합예배를 가졌다.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순복음빛된교회, 제2대 담임목사 및 권사 취임예배

부산지방회 월례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6월 14일(월) 순복음세움교회 청도수양관(담임 정기영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교단과 지교회 발전을 위해 토론까지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재무 김연호 목사(행복한세움교회)의 사회로 조은혜 목사(순복음빛된교회)의 대표기도, 박정호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성경봉독, 증경지방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요일 4:7-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설교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길 위하여 목숨을 아낌없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강조했다.

예배는 김주성 목사(순복음민들레교회)의 헌기도, 증경지방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부처를 한 후 방역숙의 하에 시범의 교제를 하면서 지역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목회의 정보를 교환하며 권면하고 각자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부산지방회 취임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 순복음빛된교회(담임 정환무 목사)는 지난 6월 20일(주일) 오후6시 동교의 본당에서 정환무 목사와 김경숙 권사의 취임예배를 드리고 부산지역복음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태주 목사(순복음부산우리교회 담임)의 사회로 증경지방회장 한순남 목사(순복음반송교회)의 대표기도, 증경지방회장 정환무 목사(순복음빛된교회)의 축도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설교 38:1-4 말씀을 본문으로 ‘담난지방’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다윗과 요나단 같이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힘이 되어주는 친구가 되어줄 것을 강조



했다. 이어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집례로 서약 및 지리권 부여와 공포로 취임식을 마친 후 증경지방회장 박윤호 목사(오일순복음교회)의 축사, 증경지방회장 고영관 목사

(순복음한세교회 담임)의 권면, 함종윤 목사(순복음빛된교회 담임)의 축사, 담임목사로 취임한 정환무 목사의 담사와 증경지방회장 유봉수 목사(순복음한세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축하와 교제를 나누었다.

2021년 제4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6.25 상기 구국기도회

전쟁의 참상으로 폐허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

동성애법과 평등법, 주민자치법과 이슬람법 저지 총력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단법인)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

사단법인 아산시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동웅 목사)는 2021년 제 4차 민족복음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6.25 상기 구국기도회를 지난 6월 25일(금) 오전 7시 당진시나렛성교회(담임 황하성 목사, 분회 지도위원)에서 개최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 줄 것을 다짐했다.

이날 1부 예배에는 상임회장 김수홍 목사(시온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먼저 대표회장 진동웅 목사(은안교회)의 헌경사로 시작되었다.

진 목사는 헌경사에서 오늘 아침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하며 전쟁의 참상으로 폐허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전 세계가 멸망할만한 OECD 국가 중 제10위 경제대국으로 축복하여주시고 민족과 전 세계가 복을

을 전할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6.25를 상기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에 동참하여 주신 민족복음화운동본부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71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김일성 공산당은 불췌로 남침했지만 자유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지켜 주기 위하여 참전한 미국을 위하한 유엔 16개 연합국들이 피 흘려 생명을 바친 공로이며 아이 우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본받아 그들이 남겨준 지상에서의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하여 다시는 이 나라 이 땅에서 제2의 6.25가 재현되지 않도록 기도를 당부했다.

이를 위하여 종교의 자유를 발할하는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도록 기도하여 줄 것과 교회탄압 정책적인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생활하는 것을 기로하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과 평등법, 주민자치법과 이슬람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아산시 40여 교회와 함께

6.25를 상기하며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지역복음화와 민족복음화에 더욱 힘을 것을 강조했다.

우리의 기도로 나라와 지역의 지도자들을 일깨워 교회개혁,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주민자치 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악법 반대와 우환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될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하라고 부탁했다.

아사시 부회장 이광로 목사(아산중앙교회)의 대표기도와 함께 박인숙 목사(행복교회)의 성경봉독이 이어 되고 고문 김소윤 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신 28:1 말씀을 본문으로 ‘6.25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6.25는 국제 공산주의의 야욕과 남한 갈등으로 비롯된 참상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고, 종교 지도자의 기도과 바티칸 주교의 비난과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모두가 반대한 것은 인연 선택을 전을 감행하므로 이 나라를 구했다. 6.25는 우리나라의 국운을 돌렸고, 산업화로 국력을 발전시켰으며, 전 세계에 알려져 국위선양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 절대기를 원하셨다. 교회는 보론사상으로 민족복음화를 이루어 사상적



으로 종북 좌파, 주사파를 배격하고, 나라에 필요한 인재 배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기도에 힘써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 분회 지도위원 황하성 목사(행복교회)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날 2부 보고회 및 세미나 시간으로 상임회장 이광로 목사(행복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분회 차분위원 국희원 이명수의 원(국민의힘)의 국가보안법제지, 종전선언, 전사적전권 반한 등의 안보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정 한한 보고가 있었다. 아사시 차분위원 박성기 교수(대의)의 ‘대한민국의 변화

와 민주주의 위기’란 제목으로 세미나가 있었다.

이날 3부 기도회로 상임회장 조병희 목사(순복음빛된교회)의 인도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를 한 후, 주례 기도 1)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회장 구자현 목사(배방감리교회), 2)중국어권부회장(코로나19 바이러스 소멸을 위하여 지도위원 박정영 목사(아산중앙교회), 3)국가보안법을 위하여 고문 임기석 목사, 4)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과 건강가정기본법, 주민자치 기본법의 독소조항 철폐와 악법 폐지를 위하여 부회장 정환무 목사(순복음빛된교회)의 기도 있었다.

이어서 사무총장 정진학 목사(행복교회)의 광고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장소를 이동해 당진시나렛성교회에서 준비한 조찬을 나누며 교제시간을 가졌다.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통합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달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화하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쁨을 널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기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시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회위원회

군선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화제의 신간 / '서정복 목사의 세번째 책'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10가지 신앙원리

10-1=0 나에게 한가지 부족한 것은



서정복 목사

물입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수학적으로는 9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전혀 아닙니다. 10에서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10까지 잘했는데 하나를 실수하면 모두가 무효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10-1=0입니다.

집을 지으려면 해를 살 수 없이는 연장과 도구와 재료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차근차근 쌓아올려야 보면 계획하고 구상했던 대로 집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어느 한 과정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 누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지로서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세상 화복, 흥망성쇠로 인해 회로에이 교차합니다. 그러다보니 때로는 택함을 받은 제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하고 삶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이 때 10-1=0 지침서는 세상에 합종하지 않고 나를 나 되게, 나를 제자 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동역자를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내가 가까웠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신령한 집을 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정복 목사

평등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 민주주의와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 반대, 나쁜 평등법이 철회될 때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이 6월 16일에 발의가 된 후에 이를 반대하는 온라인 국회청원인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발의에 100명의 동의를 받은 후 사전 상사를 거쳐 2021년 6월 18일 17시 11분에 공개가 되었고 불과 한 4시간도 되지 않아 십만 명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되었다.

작년에 발의되었던 정당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입법반대 국회청원이 올라와 2020년 7월에 십만 명 동의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다다수 언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청원은 한 달의 기간 동안에도 3만 명의 동의도 받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올해 제정된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청원은 2021년 5월 24일~2021년 6월 14일까지 22일 만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사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이를 보도하면서 마치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민의 열망이라는 식의 여론몰이를 하며 호도했다.

그러나 이번 평등법안 반대 청원이 신세가 없을 정도로 이도복 짙은 7기에 십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이 마치 다수 국민의 여론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린 언론사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것이다. 팩트에 근거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여야 할 언론사들이 이처럼 편향된 보도를 하면서 집권 여당이 편이 되어 여론공성을 삼킨 한 모습에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과거 독재 권력에 맞서서 펜을 쥐지 않았던 민주와 열사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평등법을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가 이처럼 명확해져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뉴스 프레임에 싸여있는 전술을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은 더 이상 언론사라는 이름도 붙이지 못할 것이기에 세력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평등법안 반대 국회 청원이 가짜뉴스에 오를 정도로 빠른 시간에 십만 명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을 과연 몇 개의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할 것인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를 통해 찬성 측에 가까이 접촉하는 언론사들은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내 보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에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진실 보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지조와 신념을 가진 언론사들은 이번 평등법 반대 십만 명 청원 달성을 제대로 보도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의 깨어난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평등법'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게 되었다. 평등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남녀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방부, 사법부를 지배하게 하며, 나아가 대한민국을 신 천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매우 위험한 발이라는 그 실체를 많은 국민들이 널리 인식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공공성이 무너지고 있음이 매우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않을 만큼 지적으로 성숙하며 팩트에 대한 분별력이 매우 우수함이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

이제 십만 국민을 넘어서 백만, 천만, 오천만에 이를 때까지 파죽지세로 가세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반대를 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들 보던 위기에 강한 국민이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건져낸 것은 나의 인위와 편견을 내 버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섰던 수많은 선조들 덕분이었다.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려는 나쁜 평등법이 철회될 때까지 깨어난 국민들과 함께 총력전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

2021년 6월 22일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언론보506개 단체

세기총, 태권도진흥재단과 업무협약 국민인 태권도 활성화에 기여 기대한다

(사)세계한국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이하 세기총)는 지난 6월 15일(화) 오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웅환)과 국민인 태권도 발전 등 다양한 사업분야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라북도 무주군 소재 태권도원 명인관 내 일대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에는 세기총에서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 증경대표회장 김요섭 목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태권도진흥재단에서는 오웅환 이사장, 정국현 사무총장, 김병준 경영본부장, 김용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세기총 대표회장 심평종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태권도진흥재단이 태권도를 통한 국민인생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감에 서 노력"이라며 "세기총은 750만 디아스포라와 함께 오는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 태권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태권도가 더욱 발전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세기총이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오웅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태권도는 국가이자 인류의 원조"라며 "여의와 존중, 사랑 그리고 평화의 무언인 태권도를 세기총 가족들도 더욱 가까이하고 수련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세기총 모든 멤버들이 함께 할이 되어 달라"고 밝히며 "태권도 국제화 보드에 양 기관이 협력하자"고 전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증경대표회장 김요섭 목사는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기일라"고 밝히며 "세기총과 태권도진흥재단이 함께 이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한다"고 했다.



사)한국교회법학회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집중해부 제27회 학술세미나 개최, 사전 신청자 40명만 입장

(사)한국교회법학회가 '건강 가정의 회복과 교회'이라는 주제로 제27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해부했다.

학회는 지난 6월 30일(수) 총로 5개 소재 한국교회 100여년기념관 1층 3교사홀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 관계자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건강한 가정을 통해 그분의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고 가르친다"며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도 가정을 존중하고 협력, 일심으로 이루어진 사랑의 기본단위로 보고 건강가정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그러나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성경적, 헌법적 가정을 해롭고 동성 가족을 가정(가족)의 형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내세우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법) 논평

평등으로 포장한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해야

평등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다다수 국민을 억압하려는 소수의 특권을 위하여 다수의 기본권(양심의 표현)을 억압한다.

평등법은 동성애, 동성혼을 정례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사회와 윤리를 해체한다.

발의된 평등법은 모두에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구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동성애자들의 평등을 최우선로 보장하고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우리 헌법에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보완하면 되지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새롭게 만들 이유는 없다.

모든 국민과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악법인 평등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이에 실패하면 평등은 다름과 같은 입장을 발표하면서 평등법을 죽이 폐기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1. 이 법안의 문헌명은 차별금지조항에 사회적 형평성이 이루어지라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대상은 독소조항을 넣은 것에 있다.

이 법안이 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조항은 "성별, 장애, 연령,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종교,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직,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하는 바 같이 사회구성원이 윤리와 도덕에 입각하여 동의할 수 있다.

그런데 법안의 문제점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로하여 이를 반대하는 다수의 표현·양심·종교·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것이 여차별을 낳게 되는 것이다.

2. 우리 헌법이 이미 포괄적인 차별금지 사항들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조항은 불필요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우리 헌법은 평등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이다.

3. 형사교범조항이 없다고하나 징벌적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 반대 성교, 강간, 강간 등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평등법은 확립된 평등을 강요해 종교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 성별 차이를 부정한다. 이념의 위기의 평등법안은 정경여당의 위법 차별법을 달리 '형사교범조항'이 없다" "동성애를 처벌하는 성교형은 종교의 자유로 규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안으로 제정된다 실제 적용의 경우

는 입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될 수 있다. 형사처벌이 없는데도 징벌적 민사상 손해배상 조항이 있기 때문에 고소와 고발이 있게 되어 목회자의 성교는 위법되고 시민단체의 반동성애 캠페인, 교수들의 동성애 반대 강의는 크게 위축을 받게 된다. 평등법이 통과되면 성교, 사회 문화 내에서 교리에 따라 성교하는 것조차 수십억, 수백억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로하여 동성애 및 성생활권에 대한 양심적 신장적, 학제적 반대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협할 것이다.

4. 성소수자는 무차별 입법주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맞서는 자연법 상에서 지켜야 한다.

이 법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은 "이번 사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을 빼고는 건 오히려 입법적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을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이성인 의원은 성 지향성과 성 정체성도 차별 조항에 넣어야 한다는 무차별적 평등주의의 시도에 빠지고 있다. 그는 동성애와 동성혼이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동성가미의 성적 교섭은 자연질서에 반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5. 이 법안은 유교로부터 유래한 UN 인권선언문에는 교묘하게 빠지고 독소조항인 사회적 성과 젠더 정체성을 뒷부분에 교묘하게 삽입한 악법이다.

평등법 제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NGO 단체가 주장하는 욕아카르타 원칙을 따지 UN 인권선언문처럼 오히려 하여 지구촌의 모든 나라가 성소수자의 인권을 증진해야 하는 것처럼 판권을 흐리게 한다. 욕아카르타 원칙은 UN 인권선언문을 교묘하게 뒤집고 독소조항인 "사회적 성"과 "젠더 정체성"을 뒷부분에 교묘하게 삽입함으로써, 전통적인 가정과 윤리를 무너뜨리려는 속셈을 가진 악한 의도가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잘못한 악한 원칙을 가지고 있는 욕아카르타 원칙을 실현하려는 평등법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악법이다.

6. 평등법은 동성혼을 정례하여 가정을 무너뜨리고, 전통적인 윤리와 사회를 해체하기 위하여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평등법 주장은 전통적으로 남녀가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제의 성교, 젠더 문제 정경여당에서는 차별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평등법은 주로 '성별'이란 단어가 28회 지속적으로 언급된 것을 중시할 때, 사회적 성과 동성애를 지지하고 젠더 정체성을 교묘하게 숨기고 전체 국민의 도덕과 윤리의 근본을 무너뜨리고 소수의 '사회적 성' 개념을 두둔함으로써 다다수 국민을 억압하려는 발상이다.

7. 이 법안은 기독교 선교 및 목사 설교에 차별적인 결의를 초래하며,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해체하게 될 악법이다.

평등법의 행태는 이미 우리 헌법에 있는 차별금지법(헌법), 직업, 나이, 출신, 학력, 국적 등에 대해 독소조항인 '성적 지향' '젠

더 정체성'이란 독소조항을 넣은 것이다. 이러한 독소조항은 이미 우리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더 나아가 기독교 선교 및 목사 설교에 차별적인 결의를 초래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해체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비정상에 억압을 조장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악법이다.

8. 다다수 국민의 목소리를 위한 무리한 불평등한 법안인, 졸속 입법하려는 국회의원들은 법안 제정에 앞서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

왜 국회의원 24명은 다다수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여 기득나 코로나 상충에서 전 국민이 신음하고 경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고통을 받기 시작해 평등법을 발의하여 국민을 실망시키는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결국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고 하려 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게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9. 성소수자의 진정한 행복 추구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니라 존엄인성운동에 하도록 도리어 진정한 사회 공동체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다만 차별금지법 제정 여부, 차별금지 사유에 관하여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성소수자에 관해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보장돼야 한다. 그

런데 차별금지법 제정은 저들에게 특권을 부여하여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도록 하여 이들이 특권신분을 누리게 하고 그들에게 대한 양심적인 비판가들에게 징벌적 배상을 물리도록 함으로써 억압을 하는 심각한 사회적 위법행위와 차별을 만들게 된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합동성애하도록 하여 이들이 정점으로 인간관계 살도록 신바라미의 사랑을 대하여 한다고 한다.

10. 한국교회는 평등으로 포장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신적인 결의로 기도하며 싸워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제 기도하면서 열망이었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피 흘려야 할 싸움이고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너져가고 있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80년 8월 24일 - 1833년 7월 29일)는 18세기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이끈 정치인이자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델이었다. 교회사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는 코넬 대학교의 명예교수이자 정치인인 모건 베른(Morgan Bern)과 더불어 18세기 영국 성공회 복음주의자 중 한 사람으로 노예제도 반대 운동의 기수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추앙 받는다. 한국교회가 총체적으로 단합하여 동성애 발원지를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동성애 발원지인 전 세계적 문화적 형식(가)에 이르지 않고 거역할 수 없는 문화적 대세를 쫓는 길을 택해서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일부 그들의 비합리와 타협의 시대적 중독에서 깨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우리의 회성을 통하여 미래 세대의 자녀들이 밝아질 수 있다. 그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리를 지닌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2021년 6월 28일
실용을 공하는 나쁜평등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2년도 목사고시 공고

2022년도 목사고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서 류 접 수 : ① 일시: 2021. 8. 31(화) 17: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② 장소: 총회본부(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③ 방법: 등기우편

* 목사고시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총회홈페이지(www.aogk.org)→ 자료실→ 서식다운로드→ 교단서식→ 제15호 목사고시청원서(구비서류첨부)→ 2부 작성→ 지방회에 제출→ 지방회임원회 심의→ 1부 지방회 보관, 1부 총회본부에 제출.

* 총회목회대학원 2학년 재학생은 우선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12월 졸업과 동시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한다.

2. 서 류 심 사 : ① 일시: 2021. 9. 09(목) 오전11시 ② 장소: 총회본부 회의실

3. 오리엔테이션: ① 일시: 2021. 9. 30(목)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본부

4. 목사고시료 : ① 납부일: 2021. 8. 31(화)까지 ② 금액: 50만원

③ 입금계좌: 국민 061701-04-1768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목사고시 : ① 일시: 2022. 2. 7(월)~8(화) 오전10시 ② 장소: 총회목회대학원 강의실

6. 전도사 경력 계산은 만으로 하되, 계산일은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직장과 목사직은 겸할 수 없으므로 직장을 가진 자는 목사고시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8. 목사고시 응시 자격은 헌법 제37조 및 헌법시행규칙 제13조를 준용한다.

9. 서류심사 이후에는 목사고시 서류일체와 고시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신재영 고 시 위 원 장 목사 이석호
총 무 목사 이경진 고시위원회서기 목사 김영준



사단
법인

아산시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본부장

실무회장

상임회장



진등용 목사 이두영 목사 박노섭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김병완 목사

고 문 정연창 목사, 강상철 목사, 김소윤 목사, 김형태 목사, 신상우 목사, 이영한 목사, 임기식 목사, 연용희 목사
자 문 위 원 이명수(국회의원), 강훈식(국회의원), 오세현(아산시장), 고재권(아산경찰서장), 황재만(아산시의장), 강희복(전 아산시장), 박성기(U1대학교 교수)
대 표 회 장 진등용 목사
본 부 장 이두영 목사
상 임 회 장 최규명 목사
공 동 회 장 진등용 목사, 노선용 목사, 이두영 목사, 최규명 목사, 강영구 목사, 도승현 목사, 임용석 목사, 임용석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노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온재천 목사, 황기식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지 도 위 원 박자영 목사, 박팔용 목사, 최성덕 목사, 김병철 목사, 표의성 목사, 김관호 목사, 김덕수 목사, 박봉순 목사, 송화섭 목사, 이재구 목사, 최재희 목사, 박신석 목사, 엄태일 목사, 최상근 목사, 황하성 목사, 최순식 목사, 김완진 목사, 백현기 목사, 김준호 목사, 김성구 목사
부 회 장 이광로 목사, 서석웅 목사, 장현원 목사, 정병환 목사, 윤돈상 목사, 이덕희 목사, 김성권 목사, 권일귀 목사, 조계성 목사, 김익중 목사, 유현희 목사, 고영기 목사, 김경환 목사, 엄태일 목사, 이재두 목사, 김주섭 목사, 김현준 목사, 송화섭 목사, 박덕수 목사, 안덕근 목사, 안홍규 목사, 고영기 목사, 박성화 목사
사 무 총 장 정진학 목사
총 무 차추병 목사
상 임 총 장 차추병 목사
서 기 정수희 목사
회 계 박인숙 목사
재 무 이은혜 목사
회 원 아산시 400교회
후 원 회 한상문 장로
후 원 회 배성만 장로, 김영식 장로, 박동국 장로, 장상근 장로, 오자근 장로, 김도식 장로, 김수홍 장로, 임도순 장로, 이익상 장로, 황익덕 장로, 신요섭 장로, 이세영 장로, 김현우 장로, 박해서 장로, 한장섭 장로, 이창식 장로, 광웅기 장로, 차영환 장로, 김기문 장로, 박노장 장로, 김현진 장로, 한상문 장로, 정진경 장로, 이희열 장로, 박종택 장로 (외 각 교회 장로)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70인 천년초식품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약연구소 발표)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1)배농성물집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2 알레르기성 피부염, 각종 알의 예방(위생원)

(고려대학교 순음계 교수님 임의로 세계특허)

2)콜리노이드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타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세포 불어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총칼슘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잔디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할 수 없는(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4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인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교단공과 신청

출판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아동부 설교파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① Fax: 02)2677-5181, 031)441-1793
 ② e-mail: aogk@aogk.org
 ③ 입금계좌: 농협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ASSEMBLIES OF GOD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1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조 작

임원단

전국지부장

역직	이름	소속교회
예배부장	정혜원	조동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선교부장	홍희정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복지부장	기영숙	기영숙교회 조병희 목사
봉사부장	최복희	최복희교회 김순자 목사
홍보부장	김영숙	김영숙교회 이복순 목사
재정부장	김영숙	김영숙교회 안산자 목사
행정부장	최영숙	최영숙교회 최진희 목사
기회부장	최영숙	최영숙교회 최진희 목사
행사부장	최영숙	최영숙교회 최진희 목사
친교부장	최영숙	최영숙교회 최진희 목사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위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경계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 사랑의집 연혁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중생활가정)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석경리)

2007. 10. 3 이천교회위원 표창

2014. 12. 13 이천사랑 표창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2020. 12. 18 이천사랑 표창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 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융로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국제사랑재단 2021 사랑비전대회

꼭박촌과 독거어르신 밥사랑 및 장수사진촬영 잔치

민족사랑 세계사랑 (사)국제사랑재단(이사장 김승학 목사 안동교회, 대표회장 김영진 장로, 전 남원부장관은 꼭박촌과 독거노인을 비롯한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해동은마을(이사장 정현일 목사, 신생리나무교회)과 (사)월드뷰티센터(회장 최아스터 신대대 교수)와 신대대학교 뷰티서포터스(CBS)가 함께 6월 23일 신생리나무교회에서 제3회 2021 사랑비전대회를 개최해 정성으로 준비한 대채차와 사랑의 선물을 증정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신대대 뷰티서포터스(CBS)인 헤어 메이크업 등 전문지원봉사자들과 김광용 사진작가(해동)와 예술로 대39의 재능기부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멈춰있던 장수사진 촬영 등을 사치를 두며 진행해 큰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 기증된 마스크는 한국여성언론협회(총재 박영숙)와 해동은마을 홍보대사인 임정화(교수(백석대)의 후원과 OROUND 협력으로 이루어 졌다.

김승학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꼭박촌과 독거어르신을 정성으로 섬기는 해동은 마을 만나눔사역을 동역하며 늘 감사한다"고 말했으며, 김영진 대표회장은 "서울역에서 마포까지 20년 동안 노숙자와 꼭박촌 어르신들을 섬겨온 해동은 마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행복하길 좋겠다"고 축사했다.

정현일 이사장은 "늘 어렵고 소외된곳을 찾아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국제사랑재단에 감사의 전하고 어르신 모두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시기를 바란다"고 용기를 전했다.

해동은마을은 매주 5회 만나눔사역으로 섬겨오다 코로나19로 매주 수요일 1주일 분량의 대채차로 섬기고 있다.

오늘 행사는 국제사랑재단에서 김광용 이사장, 김영진 대표회장, 독고인호 사무총장, 이영현 사무국장을 비롯 해동은마을 정현일 이사장, 월드뷰티센터 최아스터 회장, 장민우 사무국장, 김광용 사진작가, 구운 장로, 최세원 사무국장, 최세진 영양사 등이 참석했다.



6.25 국가 안보기도회 및 장로교 역사탐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백령도의 중화동교회에서 개최

사단법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중준 목사)는 제13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기념하여 6.25 국가안보기도회를 6월 2~22일 대륙 정장지역이며 구한말 북쪽의 통로가 되었던 백령도의 중화동교회에서 개최했다.

6.25 국가 안보기도회는 제13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기념하여 본회가 지속해온 평화와 통일과 나라를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13회 한국장로교의 날을 기념하여 외국인 선교사들이 아닌 현지인들에 의해 설립된 123년 역사의 중화동교회(이정환 목사)와 백령기독교역사관을 탐방하여 자생적 한국장로교 초기 역사와 중화동교회 설립한 하득, 서경조 등 선조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찾아보았다.

백령도는 구한말 조선에 북쪽이 전해지는 통로의 위치였다. 1816년 맥스웰(Murray Maxwell)대령이 이듬해 선전에 클리퍼드(H.C. Clifford) 해군 대위



가자비로 승선하여 각 지역의 언어를 수렴하고 선교 가능성을 탐사하기 위해 백령도에 정박하여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며, 1832년 칼 귀츨라프(Karl F.A. Gutzlaff) 선교사가 영국 런던 선교회의 파송을 받고 동인도 회사 무역선에 동역 겸 선장 의사로 승선하여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처음으로 조선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첫 번째 순교자인 토마스 선교사는 1865년에 서북해안을 찾아와 백령도를 비롯한 평해도와 광진도를 순회하며 전도했고, 1880년 미국산전 제해령 서면호를 타고 백령도를 거쳐 대동강 양각도에서 순교하게 되었다.

K-가스펠 본선 시작!...내가 '찬양'을 하는 이유

[역대 찬양 오픈 프로그램]

설교와 나눔의 방송 CTS 기독교TV(회장 김경화)가 찬양을 통한 문화 사역을 위해 새롭게 기획한 '제1회 CTS 대한민국 K-가스펠' 오픈 프로그램이 6월 28일 시작되었다. 찬양과 감동의 축제, K-가스펠 예선전은 6월 28일 시작으로 6월 동안 서울을 비롯해 대전, 대구, 전주, 부산 등 24개 국 나라에서 참가했다. 영상 참여까지 1,300명이 참가한 이번 K-가스펠은 역대 기독교 오픈선 중 사상 최대 인원이 참가한 행사로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K-가스펠 참가자들은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시선의 주인공들이 있었다. 특히 수이로 찬양을 드린 안중환 참가자는 목소리가 아닌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찬양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렸고, 난소안 수술로 인해 지료를 이어가고 있는 김희재 참가자는 질병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찬양의 힘을 느꼈다. 다양한 장르의 참가자들도 있었다. 합창, 탭, 성악, 수어찬양 뿐 아니라 국악 실력자들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특히 다음세대 참가자들의 찬양과 워십댄스로 찬양하는 감격의 모습 그리고 해외 참가자들이 우리말로 찬양하는 모습에서 글로벌 대회를 실감할 수 있었다.

[본선 시작! 생방송 결선!]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각 지역에서 진행된 예선에서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면서 안전하게 진행했다. 6월 25일부터 진행된 K-가스펠 본선과 결선에서도 참가자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찬양의 은혜는 CTS를 통해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월드비전, 저소득 국가 백신 보유 전쟁

'난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보고서 발간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영환)은 지난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난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불평등'을 주제로 보고서 발간했다.

월드비전은 '높은 위험, 낮은 우선순위: 난민과 국내 실행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이 필수적인 이유' 보고서를 통해 난민들의 취약성을 악화시키는 코로나19의 파괴적인 영향력과 난민 및 보건의료 접근의 제약으로 인해 이들이 처한 어려움을 밝히며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성을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요르단, 터키, 베네수엘라,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등 총 8개국의 난민 및 국내 실행민 339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난민과 국내 실행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높은 위험에 처해 있지만 백신에 대한 접근성이 가장 낮았다.

장 낮았다. 또한, 고소득 국가가 전체 백신의 84%를 보유한 반면, 난민 4천만 명 이상을 수용하고 있는 저소득 국가들은 전 세계 백신 공급량의 3%만을 보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1,914명 중 단 1명만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고, 68%는 백신접종 계획에 대해 전혀 들은 바 없었다고 답했다. 또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난민수용구의 40%는 난민에 대한 백신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가정과 이동의 발달에 미치는 2차 영향력에도 주목했다. 설문조사 결과 84%의 응답자 73%는 지난 12개월 동안 소득이 감소했고, 40%는 실업률 경험 77%는 사생활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원

코로나시대, 가족세트전도가 능력전도다

나는 1984년에 장로대 신학대학을 입학하고 1993년에 신대원을 졸업하여 비교적 빨리 목회를 시작하였다. 1995년 전주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다. 1998년 10월에 대전에 올라와 개척을 했으니 지금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나는 '도시 복음화를 통한 참된 인간성 회복'이라는 비전으로 달려왔는데 문제는 전도였다.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등 수많은 전도법을 적용해 봤다. 그러나 예배당은 텅 비었다. 세례를 주면 다른 교회로 옮기고, 처음 믿고 잠자까지 인정하네 다른 교회로 옮기고, 지금 남은 장년 성도는 나와 아내를 합하여 10명이었다. 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모이지 않을까?

이치일음?

설교할 때는 함양과 긍정적인 은혜를 끼치고 있었지만 나는 계속 패이 빠져가고 있었다. 이를 전에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 은퇴합시다"

"그러면 참에 '가족세트전도법'을 알고 나는 큰 힘을 얻었다. 박영수 목사가 직접 대안지침 목회자들과 함께 가가호호 방문을 하였는데 교회건물 1층에서 1층 해를 탕 가가 여주인이 박영수 목사를 따라 영양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가족의 신상을 다 기록한다. 약 1시간 동안에 11가정이 영접을 했다. '가족세트전도법'은 지금까지 내가 훈련받은 전도법과는 다른 몇 가지 면에서 분명 다른 것 같다.

지금까지의 전도법은 이론적인 면이 강했으나 가족세트전도법은 철저한 현장 위주이다. 또 인간적인 안부를 묻는 다른 전도법과는 달리 타협하지 않는 복음 메시지를 통해 복음이 직접 닿게 한다. 그리고 현장에서 기초 안락과 교회 출석까지 약속하는 초스피드 전법이 특징이다.

코로나시대 가족세트전도는 한국교회의 전도의 대안으로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장로교회 담임 목사 유쾌한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원 박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거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에 건강하게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술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살균 5.편도 보호 6.갑치예방 7.잇몸 질환(소금물 양치, 기금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한 명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 정 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오 일 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 상 웅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 02)2675-5181~3 FAX: 02)2677-5181www.c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For your Healthy Life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학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참된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산청한방가족호텔은 지난 1월 25일(금) 한의원, 카페,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추가로 입점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고단 부산지병회 증경회장 한영철 박사와 고영관 목사 등이 참석하여 축복하고 발전을 기원했다.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 A, 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로길 43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교회 편지

내안의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향하여 갈 때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외에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갈 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고는...

본향을 향해 가면서 소홀히 넘겼던 감정의 문제들.
내일로 미뤘던 작고 사소한 문제들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되어 내 가는 본향 길을 막는다.

어찌 내 믿음이 밀바닥으로 떨어져 헤매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이루어낸 것이 없다고 낙심하는가!
예, 내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 부끄러워하는가!

지금, 이것이 내가 점령해야 할 여리고성이 아니겠는가!
지금, 이 깨달음을 주신 이 순간이
무너뜨릴 힘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는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바로 주님께 집중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순간이라고...
이 아침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구나! 이거구나!
지금 교만의 성이 무너지고 있다.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
쓴 뿌리의 성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 순간에 내 영혼속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했던 그들처럼
내안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다.
와르르 쾅... 와르르 쾅... 와르르... 와르르... 쾅쾅쾅...



조소되지 못한
불완전한 내 모습 안에
부활의 생령력이 있다고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주일 아침이다.

6.25 71주년 한국교회 연합성회

한교연, 한기총, 한기총연, 군포시기연, 건강한 경기도민연합 공동 주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손대섭 목사(이하 한교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맹연합회, 군포시기독교연합회, 건강한 경기도민연합 등 4개 단체와 공동으로 6.25전쟁 71주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개최했다.

지난 6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군포제일교회(권태진 목사)에서 6.25전쟁 71주년 한국교회 연합성회'를 개최하고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비극이 재연되지 않고, 속히 한반도에 주님의 '살림'이 임하기를 기도했다.

한교연 상임회장 김학철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성회는 최승훈 목사(건강한경기도민연합 대표회장)의 환영사와 김요중 목사(한교연 상임회장)의 대표기도, 박종안 목사(6.25한국기독교연합회 상임총무)의 성령봉독에 이어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김영근 목사 한교연 사기), 6.25

전쟁의 희생자 및 참전군 장병들을 위하여 (김정식 목사 한기총 사기), 한국교회 영적 부흥과 예배회복을 위하여 (현수동 목사 한기총연 사무총장), 코로나19 퇴치와 의료진 및 환자들 위하여 (김지현 목사 군포시기연 총회장), 5개 연합기관의 활동을 위하여 (이병순 목사 한기총 전국총회장) 각각 특별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요중 목사(한교연 총재 대표회장)와 황덕광 목사(한기총 전국총회장), 신상철 목사(건강한경기도민연합 상임회장)가 격려사를 전하고, 군포제일교회 합창팀이 찬양대의 찬양 뒤에 한교연 직전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군포시기연 대표회장)가 '크리니드투와 6.25' (창 17:8-36) 제목으로 설교했다.

권태진 목사는 설교에서 "성경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로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람

력이 승리했다. 이 손은 기도하는 손이다. 하나님만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목사는 6.25 전쟁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하지만 우리의 말씀에 입각해 싸우는 군사가 좋은 군인이다. 6.25 때 하나님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보낸 유엔군이아말로 좋은 군사"라며 "복음만이 피 흘리지 않고 나라를 복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한반도가 북을 통일하는 자유를 날까지 기도할 멈추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한교연 사무총장 최귀국 목사가 6.25 71주년 공동메시지'를 낭독하고 전 참석자들이 박수로 채웠다. 이날 연합성회는 한교연 대표회장 손대섭 목사의 축도와 황영모 목사(군포시기연 총무)의 광고, 애국가 제창과 6.25 노래 제창, 통성기도로 마쳤다.

사설

교회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대화, 포용, 소통 원칙은 서로를 관해 해주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며 서로를 승리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덕목이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의 일기 많은 거의 추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자유게놈이 흔들려 있었지만들에게 미련없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들의 신성함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인물이 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

9월에 퇴임하는 마르틴 루터의 지지를 무려 63% 67 회와가 끝났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유일하게 유럽의 마르틴 루터를 국민 총대했다. 2-3개월 후에 퇴임하는 사립을 총대할 이유가 없는 데도 그대를 총대 한 것은 그만큼 그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동독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다.

물리학 박사 출신의 마르틴 루터. 그는 퇴근길에 시장에 들어서면 국민들 사이에 줄을 서서 시장을 보고 집에 가서는 남편의 저녁식사를 준비해주는 전형적인 주부다. 그는 자신의 안전판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들과 국민이 우선이기 때문에 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퇴임 후를 걱정해서 감정을 개하려고 욕상적인 공수저를 만들고, 입벌만 뿐 아니라 사립부, 언론까지 장악할 필요가 없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만들려는 공수저

부리지 않고 부국강병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알기 때문에 퇴임 이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 이런 지도자가 있었는가?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고, 아서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때때로 발마다 있었던 일이 아니었는가?

김정철, 조원, 제9조에 나오는 직책이다. 공수저 장도, 경찰총장도, 심지어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도 한때는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검찰총장이 한때 제8조에 나오는 직책이다.

김정철장은 내 부하라고, 국회에서 마구 때려대는데 이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방역을 맡기로 교회를 억압하는 정부 당국의 횡포에 맞서 지금은 조국 대한민국 정체를 놓고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부러져서 기도할 때다. 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지키는 게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국회보안법제정이 국민 64.6% 반대하고 찬성이 18.9%에 불과한 이유인 의원포함정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민심을 무시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평등권 수혜를 누리는 차별금지법이 폐지하게 하고 국민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무산되게 하려는 것을 미고기도해야 한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

우리는 6.25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고, 끝났다고 착각해서도 안 된다. 북한은 71년 전의 6.25 불법침략을 통한 한반도 적화 의지를 한반도 바르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핵으로 도발을 그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전쟁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소위 김영정 하명법으로 불리는 '대북전단실종자발'을 지난 해 만들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자유에 대한 거의 유일한 소식을 차단하는 아리송함을 보였다.

수년 전 고등학생 50여 명에게 실문을 했는데, 6.25

에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FREEDOM IS NOT FREE)라고 새겨 놓았으며, 6.25전쟁 시에 전사한 54,000 명의 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우리나라의 영웅들, 아들과 딸들은 전후 알지도 못하였는데,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나라가 지켜달라는 부름에 응답하였다.”

알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만나보지도 못했으니 공산당의 침략자들에게서 자유와 생명을 지켜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이만만이 한국명을 찾아오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그 숭고한 희생을 아끼 우리가 잊고야, 우리는 지금 가장 평화에 속고 있고 평행선을 걷는 통일의 땅 상에서로 잠자고 있다. 우리가 전쟁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서 한꺼번에 공산주의와 1인 왕조 독재체제를 바치지 않는 한 통일은 무망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체제의 변화가 중요하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문: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배성현

● 연락처: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부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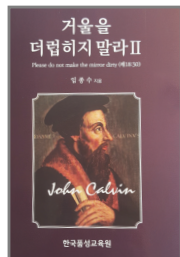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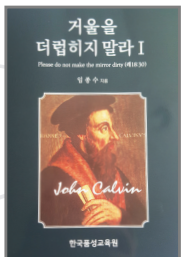
웹하드: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정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따라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 2, 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조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울은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든 어떤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문 7가지와 자기 개발의 부문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불리쳐야 할 세력들 즉 집과 곳,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현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입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익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 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수시
 - ③ 전형료: 20,000원
-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도행전 13:1-3에 예하성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점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열심.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수시
- ② 원서교부처: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30,000원
- ② 계좌번호: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www.ucts.org,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02)2678-5181